



우리시대 참스승

추산초등학교 교장 홍삼선

학교숲가꾸기 환경교육 실천에 앞장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先頭走者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잡초와 화초 및 작물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 벼도 처음에는 잡초였다. 그러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작물로 이용되고 있다. 장미도 켈레나무에서 아름다운 장미인 화초로 변했다. 우리 주변에 자라고 있는 잡초는 무수히 많다. 이 잡초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화초나 작물로 가꿀 수 있다. 인간의 창의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추산초등학교 홍삼선(사진) 교장이 강조하는 말이다.

홍 교장은 인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양평, 안양, 남양주, 포천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 홍 교장은 교사시절부터 과학,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과학과 환경교육을 위한 학생지도에 노력을 해왔고, 전국 과학전람회 등에서 두 번이나 특상을 수상하여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4년 교장으로 승진하여 추산초등학교에 첫 부임한 홍 교장은 민주적인 학교 경영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교사 배치도판에 보면 학교장을 출발로 하여 수직으로 교직원 구성도를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방사선 모양으로 현황을 표시함으로써 민주적 학교 경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나 생각을 최대한 수렴하여 학교 경영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창의력 신장 교육에 역점을 두고 학생지도에 힘쓰도록 경영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기르도록 시도하고 있다.

홍 교장은 무엇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추구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학교경영에 임하고 있어서 항상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홍 교장은 추산초등학교 주변이 개발로 아파트가 건립되고 점점 도시화되면서 삭막해지는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해 학교숲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체험중심의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교육청지정 시범학교와 자연학습장 시범학교, 그린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의 숲에서 지원하는 학교숲 가꾸기를 3년간 운영하고 있다.



홍 교장은 남다른 생각으로 놀이와 학습이 공존하는 자연학습공원을 과별식물원, 회귀식물원, 식물의 생육조건원, 만다라정원, 목밭, 식물의 생육주기원, 곡물원, 김치원, 음식물 분해장, 퇴비장, 생태연못, 미래동산으로 조성했다.

이 곳에서 학생들이 관찰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이해하고, 좋아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보존의식을 가지는 태도로 자연환경과 동화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상태로 태도와 행동이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기르도록 했다.

또한 일반적인 식물의 특징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물들을 조사하여 자연학습공원 입구에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을 통해 많은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의 공동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년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주 1회 기획회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계획하여 추진했다.

먼저 지도 교사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평강식물원, 한택식물

원, 홍성 그림이 있는 정원, 천리포 수목원, 광릉수목원, 꽃무지풀무지 한탄강 식물원, 아침고요수목원 등 원거리 근거리를 막론하고 국내 유수의 특색 있는 수목원을 방문해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하여 우포늪, 백련지, 홍도, 흑산도, 거제 예술랜드 등 전국을 돌면서 회귀식물 등 각종 식물을 채집하였고, 이를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직접 심으면서 조성하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 실천했다. 이렇게 조성된 자연학습공원에서 학생들이 유익하게 체험하고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직접 시범 수업지도를 하여 학생들은 환경교과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자연학습공원에는 대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져 갔다. 채집한 식물의 뿌리에 붙여온 회귀식물이 자라고 있고, 깊은 산중에서나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자랄수록 뿌리를 내리면서 새로운 품종이 이 좁은 공간에도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수생식물을 따온 수생곤충은 수생식물원을 점점 중요하게 가꾸어 가고 있으며 가을이 되면서 먹이를 찾아온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비롯하여 학교는 곤충들의 서식처가 되면서 점차 생태환경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

이런 활동은 자연을 접하는 환경교육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열어가도록 시도하는 홍 교장의 경영 방법이었다. 이같은 노력은 또한 가을에 결실을 거두어 9월27일에는 경기도교육청지정 환경교육 시범학교 보고회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학교숲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금도 전국에서 일반화자료와 학교숲 조성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직접 채집한 수생식물들은 필요로 하는 학교에 항상 나누어 주고 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홍 교장의 활동은 학교교육에 있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새장을 열어나가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창수글빛고을'로 책보러 오세요!

창수초 돌아오는 농촌학교 운영보고회

환경조성 사업으로 학교도서관(창수글빛고을), 잉글리쉬 존, 인라인 스케이트장 증축... 압석원, 수생식물원, 재배체험장, 야생화 단지 조성을 통해 돌아오는 학교로 탈바꿈.

지난 2년간 창수초등학교(교장 권상근)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촌 학생의 자긍심 기르기"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농촌학교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아 도교육청, 도청, 시청의 지원으로 실내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고, 영어, 한자, 컴퓨터 등 다양한 운영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자각증을 취득하는 등 학

생수가 71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10월19일 보고회를 가졌다. 특히 '창수글빛고을'에는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자하는 많은 창수 어린이들이 예쁘게 정비된 도서관에서 책 속에 폭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리본아트, 달린꽃 액자 만들기, 한지공예, 원예식물꾸미기 등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감상하고, 다목적실에서는 그간 익힌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동아리부와 댄스스포츠 활동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모델학교인 삼성중학교는 10월19일 김각·운동·지각훈(치료교육과정) 중심의 특수학급 수업을 공개했다.

학사행정에 웹기반 ERP구축

경북대학 마이크로소프트 닷넷 본격 가동

경북대학(http://www.kyungbok.ac.kr)은 마이크로소프트 닷넷(.NET) 기반의 학사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대학은 지난 10개월 동안 업무 표준화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실전상황에서 시험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정보시스템은 학사행정과 일반행정 업무는 물론 그 외 취업과 전자결재, 도서관시스템 등 학내 모든 시스템과도 연동시켜 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에 제2캠퍼스를 오픈한 경북대학 측은 포천 본교 시스템과 연계된 단일화된 닷넷 플랫폼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수행한 KT네트웍스(대표 김요동) 측은 "일반 패키지

와는 달리 설계도와 프로그램소스를 대학 측에 제공, 대학 스스로 독자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특히 시스템 운영 경험을 통째로 분석, 표준화된 컴포넌트 방식의 대학전용 ERP '위즈캠퍼스'를 채택해 업무프로세스 표준화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경북대 정보지원센터 배희호 소장은 "대학전용 ERP를 이용한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선행작업과 함께 패키지 방식과 S/W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켜 대학사업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적용했다"며 "프로젝트 진행을 일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젝트관리솔루션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학교 제8대 교수협의회장 장운수 교수

정교수 승진문제 해결·제도개선위원회 시안 철회해야 인사제도개선비상대책위원회(가칭) 활동 적극지지 要望

"삼가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각고면려하는 자세로 임하여 막중한 책무와 교수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부응하도록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우선 교수님들의 힘과 중지를 모아 교협 회원님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파생한 교수님들의 불이익을 바로 잡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10월19일 실시한 대진대학교 제8대 교수협의회장 선거에서 29대1로 당선된 장운수(사진·55)교수(국문학과)가 당선 감사인사에 밝힌 내용이다.

장 회장은 "가장 화급한 것은 정교수 승진문제의 해결과 제도개선위원회 입안해 온 시안의 철회 및 저지에 있다"고 밝히고 "교협총회에서 인사제도개선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민첩하게 대처하자는 발의와 이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6학년도 1.2학기 두 번에 걸쳐 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추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정교수 승진 대상자 30명과 29명이 모든 승진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총장은 이들의 승진을 이사회에 제청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들 중 소수인 각각 6명씩(20%)만 선별적으로 승진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두 위원회의 심사를 번복한 초범적 3심 행위로 부당한 행정 개입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총장의 권한까지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소수를 선별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 지조차 알 수 없는, 불합 인사의 진행이며, 교수들을 권력에 쫓겨 세우고 그에 복속 시키려는 왜곡된 권력자의 발동으로 인한 횡포로 그 횡포를 그대로 수용한 인사위원장의 무책임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수의 승진은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한 인사제도의 시안이 깊이 있는 학문연구와 대학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 그 시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보직 인선의 원칙과 기준, 그 절차 및 최종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명해야 한다.

▶학교법인은 총장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자율성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총장은 임기 동안 소신껏 소임을 다한 후, 이를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의 모든 부서 및 기관의 책임지는 잘못된 정책 시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교수들의 연구비 총액을 상회하는 수많은 행정과 제 연구의 낭비와 그 수행이 소수에게 편중된 그간의 폐단도 명쾌하게 적시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제도적 기구로 편입하여 대학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삼성중 특수학급 '음악치료교육' 수업공개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모델학교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모델학교인 삼성중학교(교장 김동철)는 10월19일 김각·운동·지각훈(치료교육과정) 중심의 특수학급 수업을 공개했다.

삼성중학교는 3학급 8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미니중학교로 10여명의 특수학급 학생 중 대부분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평소 음악치료교육에 관심이 많은 김기욱 교사는 "정각훈 물체에 반응하기"라는 주제로 정인지제 학생을 대상으로 키보드, 레인스틱, 톤차임, 윈드차임 등의 음악적 기구를 활용하여 참신하고 밀도 있게 진행되는 음악치료교육의 한 과정을 선보였다.

특수학급 개설 4년차인 삼성중학교는 2006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모델학교로써 수업공개는 물론 제과·제방, 십자수, 종이접기, 비즈 공예 등 다양한 교육활동 결과물을 전시하여 특수학급 추제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계자는 "중학교 특수학급 모델학교 운영을 통하여 중학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모델학교인 삼성중학교는 10월19일 김각·운동·지각훈(치료교육과정) 중심의 특수학급 수업을 공개했다.

특수학급 교육과정이 학생수준에 맞는 개별화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을 위한 기초능력 신장, 교통 등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교육 지원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방안을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특수교사의 치료교육 관련 연구지원 등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에 다가가는 지원행정에 힘을 계속"이라고 밝혔다.

수업을 참관한 특수교사들은 "창의적인 수업주제와 수업과정 중 학

생의 문제행동을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감소시키는 교수-학습지도가 숲이 인상적"이었다며 "교토 불평한 농촌 소규모학교의 특수학급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음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삼성중학교는 교직원 모두 특수교육활동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2007년도 돌아오는 농촌학교 선정으로 학교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정성의 마름이따라하기



10. 지금 몇시 인가요?

What time is it now?
워타임이시나요?
* 8시 20분입니다.
It is eight twenty.
이쓰에이투워니

12. 얼마나 걸리나?

How long will be taken? 하루
롱 윌비테이큰?
* 차로 약 20분.
About 20 minutes.
어바웃 투티미닛스

11. 오늘 만찬은 어디에서 몇시 인가요?

What time and where is the Dinner tonight?
워타임앤웨어리스 더더너투 나잇?
* 6:30 at the Sky Lounge.
엡섹스퍼리 앳더스카이라운지

13.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었나?

What was the score now?
워위스터 스코어나우?
* 동점이야, 1 대 1.
They're tied, 1 to 1.
데이타이더 원 투원
* 3 대 3 이야,
All three, 얼드루

문의: 윤 정 성 (017-723-4977)cooyoon@nate.com

함께 공부해요

소학 (海東續小學) ③

人子之事親에 必以恭敬爲本 하고 以修身 慎行爲先 이니 如有一毫驕吝之心 爭亂之事면 必至於辱身危親 하리니 其不孝大矣 라 口腹之養 奚足贖哉 리오

인자지사에에 필요공경위본 하고 이수신진행위선 이니 여유일호교문지심, 정단지사면 필지어 진신위친 하리니 기불효대의 라 구부지양 계속 속재 리오

陶齋李彥迪 先生이 말씀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버이를 섬김에는 반드시 恭敬을 根本으로 삼고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감을 우선으로 삼아 하느니 만약 털끝만치라도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과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을 욕되게 하고 어버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니 불효가 큰 것이다.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



양 주 송 본지 지문위원장

양한다고 해서 그 죄를 다 속죄할 수 있겠는가?

부모 공경은 사람의 基本이다. 다테게임을 "하나님은 평위에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우리에 어머니를 보내 주셨다"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헌신과 봉사가 뒷받침되는 한없이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며 생명조차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숭고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머니란 이름을 가진 그 한사람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며 자식이라면 공경하는 것이 천리(天理)일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할 때 병사가 잘되고 복을 얻게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리라.